

[대내외 변수 속 내수 활성화 정책 기대]

축산물품질평가원 수급지원처

01) 국내 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과 전망

브라질 첫 AI 발병

브라질 남부 리우그란데두술(Rio Grande do sul)주 몬테네그로 지역의 상업용 가금농장에서 브라질의 첫 AI(조류독감)가 발병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첫 AI 발병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며 브라질 당국은 자체적으로 60일간 수출을 중단하기로 하였으나 일본, 영국, 대한민국 등 일부 지역은 미발생 지역에 한해 수입을 재개하는 지역화(Regionalization)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계 가격은 안정적이거나 2023년 브라질 조류독감(야생)이 유행할 당시 닭고기 가격이 변동한 경우가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어려운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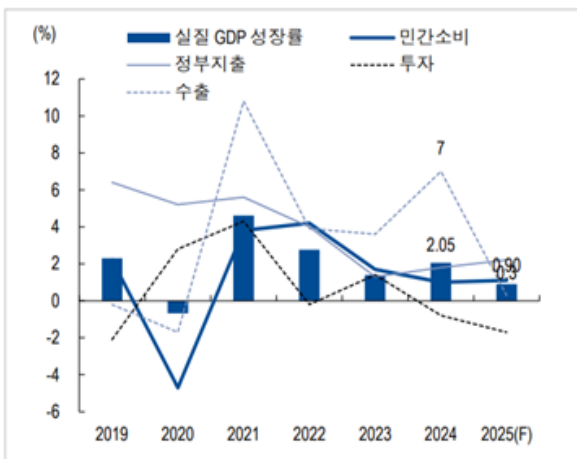
미국이 對중국 관세율을 30%로 115% 인하하면서 관세협상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협상 결과에 대해 낙관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와의 협상의 진전이 없다며 6월1일부터 50%관세를 언급했습니다. 어느 국가도 유예 기간, 유예 관세 폭 등이 모두 가변적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2차 실무협약에서는 6개 분야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에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미국측이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차 기술 협의 이후 새로운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신정부 출범 이후 후속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하향 추세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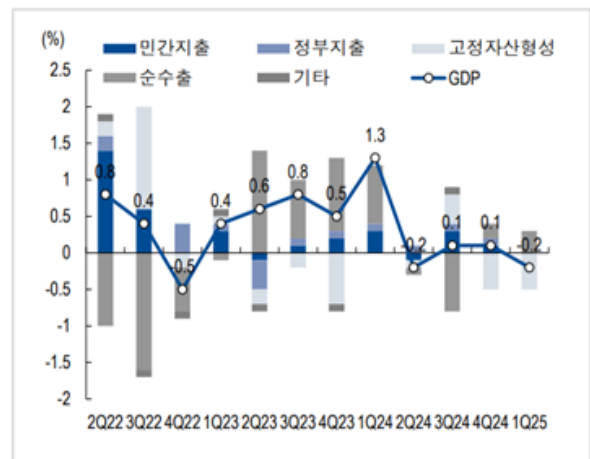
IMF는 우리 경제의 2025년 성장률을 1.0%로 보고있으며 최근 KDI는 경제성장률을 0.8%까지 낮춘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5월 수정 경제성장률 전망에서 기존 1.5%에서 0.8%로 큰 폭 하향 조정 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부과 이후 우리 경제전망이 크게 위축 되었음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관세 부과 이전에 그나마 성장세를 지지했던 순수출



자료: 한국은행,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연초 이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불확실성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4분기에는 위축된 심리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분기 한국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1% 하락했으나 그나마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며 1분기 성장률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은행은 대체로 현재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요 압력을 중심으로 2% 내외의 안정적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5월 금리 인하 이후 최대 2차례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자재와 배합사료 가격

국제유가는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 되며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곡물 생산에 일부 차질을 초래했던 라니냐(La Nina) 기후가 소멸되면서 글로벌 기상 이변 '중립(Neutral)' 전망이 높은 상황으로 미국 중심의 북반구 파종과 작황, 수확 전망이 개선돼 곡물가격 급등을 방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배합사료 가격은 국제곡물가격과 유가 하락을 반영하며 낮아지고 있으나, 하락세는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국제곡물가격의 낮은 변동성과 유가 변화를 감안할 때 2025년 8월과 9월 배합사료 가격은 2025년 5월 대비 각각 1.7%, -1.5% 예상됩니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높은 점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2) 국내 환경 및 질병 이슈

국가 온실가스의 감축

농촌진흥청은 한우 메탄 발생량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사료 소재인 '티아민 이인산'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해 탄소배출권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을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2030 NDC 농축수산 부문의 경우 27.1% 감축률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 기준)				
구분	부문	2018년 배출량(백만톤)	2030년 목표(백만톤)	감축률
배출	배출량	727.6	436.6	40.0
	전환	269.6	145.9	45.9
	산업	260.5	230.7	11.4
	건물	52.1	35.0	32.8
	수송	98.1	61.0	37.8
	농축수산	24.7	18.0	27.1
	폐기물	17.1	9.1	46.8
	수소	-	8.4	-
흡수 및 제거	기타(탈루 등)	5.6	3.9	-
	흡수원	-41.3	-26.7	-
	CCUS	-	-11.2	-
	국외 감축	-	-37.5	-

자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제주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획득

2025년 5월 제주도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가 신규 인정되었습니다. 구제역 백신 청정지역 지위 획득으로 축산물 수출 기반의 확대가 예상됩니다.

03) 국내 축산업 동향 및 전망

1. 한우

한우 공급에 대한 부담 완화 예정

2025년 4월 기준 한우 사육두수는 2021년 4월보다 낮은 수준이며, 도축두수 증가와 송아지 생산두수 감소 등을 감안할 때 공급에 대한 부담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이류 재고량 감소

주요 식육포장처리업체 한우고기 재고량의 경우 구이류는 과거 평균을 상회, 정육류는 과거 평균을 하회했습니다. 4월 들어서 할인 행사 등의 영향으로 구이류 재고량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 2025년 4월 소고기 수입량은 전년동월대비 6.0% 증가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의 경우 미국 내 공급량 감소 영향으로 수입량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호주산 소고기의 경우 호주 내 공급량 증가의 영향으로 수입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 3분기 한우 전망]

구분	주요 요인		국내 소비에 미치는 영향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
수요	- 생활형편전망 정체, 외식비지출의향 조금씩 개선 - 낮아진 물가와 낮아질 금리는 소비 심리 회복에 우호적 - 부진한 내수 소비가 빠르게 회복하기는 어려운 상황. 하반기 신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 적극적인 할인판매 행사 진행 - 올해 추석은 10월		- 추가 기준금리 인하와 내수 부양책으로 소비 심리는 개선될 것 - 다만, 여전히 높은 이자비용 부담은 이어지면서 적극적인 소비는 제한적일 것 - 할인행사 지속되며 소비 증가 가능성 상존 - 늦은 추석으로 9월 후반부터 수요 증가	- 할인행사 및 10월 추석 전후로 생산량 집중될 가능성 - 사육두수 레벨은 2021년 4월 수준 하회
공급	글로벌	- 미국 소 생산량 감소(현지 소 값 상승) - 호주 소 생산량, 수출량 증가 - 미국의 관세 부과	- 한우 및 미국산 가격 격차 축소로 미국산 소고기 선호 소비자의 한우 소비 전환 기대 - 다만, 호주산 가격 하락으로 수입산 내 지역 대체에서 그칠 가능성 상존	- 수입시장(미국→호주) 재편 과정에서 수입산의 경우 총 소고기 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미국향 수출이 많았던 호주 소고기의 국내로의 수입 증가 가능성 상존
	국내	- 배합사료 가격은 박스권 흐름 예상 - 농협사료 배합사료 가격 인상 - 사육두수 레벨은 2021년 4월 수준 하회 - 송아지 가격과 생산두수 과거 대비 낮은 편 - 가축질병 심각 단계	- 배합사료 가격 변화가 소비자의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질병 확산 선제적 대응과 면역 체계 형성으로 소비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 배합사료 가격 인상은 농가의 비용 부담을 높일 수 있음 - 한우 공급량 부담 점차 완화될 것 - 신속한 대응으로 살처분에 따른 생산량 감소, 일시이동제한에 따른 출하기간 연장 피해 완화

2. 한돈

돼지고기 소비 유지

2025년 4월 누적 기준 돈육류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을 상회 했습니다. 돈육류 소비자가격의 경우 공급량 감소와 함께 안정적인 수요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높은 물가와 저성장이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돼지고기 소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산 경락가격 지지

지난해와 유사한 도축두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량 감소와 육류 내 대체소비 수요 등으로 국내산 가격이 지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수입 육가공 원료육의 대체재인 국내산 돼지고기 뒷다리살(후지) 재고량이 과거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높은 수요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 4월에는 스페인, 네덜란드, 캐나다 등에서의 수입량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미국, 칠레 등에서의 수입량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올해 들어 뒷다리 수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연말까지 국내 공급이 부족한 가공식품 원료육 (돼지고기 1만톤)에 대해 할당관세(0%)를 적용해 공급량 확대를 유도했습니다.

[2025년 3분기 한돈 전망]

구분	주요 요인		국내 소비에 미치는 영향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
수요	- 생활형편전망 정체, 외식비지출의향 소폭 개선 - 낮아진 물가와 낮아질 금리는 소비 심리 회복에 우호적 - 부진한 내수 소비가 빠르게 회복하기는 어려운 상황. 하반기 신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 상대적으로 육류 내 낮은 가격 매력 부각 - 올해 추석은 10월		- 추가 기준금리 인하와 내수 부양책으로 소비 심리는 조금씩 개선될 것 - 다만, 여전히 높은 이자비용 부담은 이어지면서 적극적인 소비는 제한적일 것 - 한돈의 경우 육류 내 대체소비로 과거 대비 높은 가격 유지 가능할 것	과거와 유사하게 여름 이후 도축두수 증가하는 패턴 이어질 것
공급	글로벌	- 미국 돼지 생산량 증가(현지 돼지 값 하락) - 유럽 돼지 생산량 정체 - 독일 구제역 발생, 한국 수입 금지 조치 - 중국 내 생산량 과거 대비 높은 수준	- 수입산 수요 내에서 대체되는 수준 예상 - 수입량 감소로 국내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 있음	- 수입산 지역 다변화, 절대 수입량 감소에도 국내산 공급량 변화는 제한적 - 중국 수입 감소로 한국으로의 수입물량 증가 가능성 존재
	국내	- 배합사료 가격은 박스권 흐름 예상 - 국내산 공급 부담 낮은 편. 국내산 돼지고기 뒷다리살(후지) 재고 적은 편 - 아프리카돼지열병 '심각' 단계, 연중 지속 발생 5월부터 가공식품 원료육에 대해 할당관세 부과	- 배합사료 가격 변화가 소비자의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질병 확산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으로 소비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 원료육에 대한 할당관세 부과는 식품 가격을 안정시키는 요인	- 배합사료 가격 인상은 농가의 비용 부담을 높일 수 있음 - 생산량 급증 가능성 제한적 - 가축질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살처분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일시이동제한에 따른 출하 기간 연장 피해는 일시적으로 작용